



공식 방문 가이드 2026

앙부아즈 왕립 성

앙부아즈 · 시작가 17.30€

<https://chateau-amboise.visit-tickets.com/ko/> · 패스트 트랙 티켓 & 공식 요금



기원 & 역사

왕권과 르네상스가 교차한 곳

GOOGLE **4.5** ★★★★★ 30 332 후기

TIQETS **4.7** ★★★★★ 1886 후기

앙부아즈 왕립 성은 선사시대부터 인간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50헥타르 규모의 오피둠 위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시대 정착지가 이어지던 이 장소는 중세 초기 노르만 침략으로 인해 요새화가 필요해졌고, 이후 앙부아즈 가문이 세력을 확장하며 서부 프랑스에서 가장 안전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434년 루이 드 앙부아즈의 음모 사건을 계기로 샤를 7세가 성을 몰수하면서 이곳은 공식적으로 왕실 소유가 되었으며, 프랑스 왕가의 주요 거처로서의 운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샤를 8세는 1470년 이 성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에 깊은 애착을 품었습니다. 즉위 후 그는 중세의 어두운 요새를 밝고 우아한 르네상스 궁전으로 변모시키는 대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초빙한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프랑스 건축사에 이탈리아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를 열었으며, 로얄 로지와 파노라마 테라스를 완성하여 왕권의 위엄과 새로운 미학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프랑수아 1세 치하에서는 앙부아즈가 문화와 지식의 중심으로 꽃피었습니다. 특히 샤를로트 드 사보아 여왕은 성 내에 방대한 도서관을 구축하여 왕자들의 교육을 위한 지적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프랑수아 1세의 특별한 보호 아래 클로 루세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며,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르네상스 정신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 일부 구조물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40년 사적지 지정을 통해 핵심적인 건물들은 보존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로얄 로지, 기사 타워(tours cavalières), 그리고 생 휴베르 예배당은 당시 왕들의 야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각 벽돌과 돌조각은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 프랑스 왕권이 어떻게 유럽의 문화적 흐름을 주도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와 같습니다.

경험

에미르 압드 엘 카데르 오름길을 따라 성으로 접근할 때, 방문객은 먼저 루아르 강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마 뷰에 압도당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흰색 석조 건물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평화롭지만, 가까이서 보면 거대한 방어용 타워들이 과거의 군사적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입구에서 내부로 발을 들이는 순간, 중세의 차가운 공기와 르네상스의 따뜻한 햇살이 교차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로알 로지를 통과하며 화려한 목조 천장과 정교한 석조 난간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錯覺에 빠집니다. 특히 파노라마 테라스에 도착하면, 루아르 계곡의 끝없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왕들의 시선을 직접 경험하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방문객에게 깊은 여운과 영감을 남깁니다.



방문 준비하기

실용 정보

주소

앙부아즈 시내 중심가·에미르 압드 엘 카데르 오름길로 접근 가능. 인근에 공공 주차장 이용 가능.

개장 시간

연중무휴입니다. 계절과 공휴일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세요.

요금

10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결합 패스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관람 시간

로알 로지, 생유베르 성당 및 루아르 강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테라스를 여유롭게 관람하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계획하세요.

사진 촬영

실내와 정원에서 플래시나 삼각대 없이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실 가이드 투어 중이나 직원이 표시한 특정 구역에서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대상 고객

가족, 커플 및 역사 애호가에게 적합한 명소입니다. 경로에는 계단과 돌바닥이 포함되어 있어 편안한 신발 착용이 필요합니다.

찾아오는 길

접근 & 교통



버스

: 오르 섬 – 4 min à pied

앙부아즈 역 (후문) (12 min) · 투르 - 발 드 루아즈 공항 (89 min)



자동차

앙부아즈 역 (후문) (6 min) · 투르 - 발드루아르 공항 (70 min)



자전거

앙부아즈 역 (후문) (7 min) · 투르 - 발드루아르 공항 (95 min)



도보

앙부아즈 역 (후문) (12 min)

LOCALISATION

Où se trouve 앙부아즈 왕립 성 ?



Montée de l'Emir Abd el Kader — 37400 앙부아즈

47°24.819' N, 0°59.163' E



조 직

성곽을 걷는 최적의 경로

Niveau 0 (Rez-de-chaussée)

입구와 지하 공간부터 시작하여 중세 요새의 기초 구조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성의 방어 체계와 초기 거주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생 휴베르 예배당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예배당에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추정 유해가 안치된 묘소를 조용히 참배할 수 있는 경건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Niveau 2

로알 로지의 주요 층으로, 샤를 8세가 지휘했던 왕실 거처가 위치합니다. 화려한 홀과 개인 침실들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의 왕실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벽화와 장식들은 이탈리아 예술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당시 왕들의 권력과 미적 감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Niveau 5 (Terrasse)

성 꼭대기의 파노라마 테라스와 기사 타워(tours cavalières)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루아르 강과 앙부아즈 마을, 그리고 멀리까지 펼쳐진 계곡의 장관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황혼时分에는 빛의 변화가 건축물의 실루엣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사진 촬영에 이상적인 스팟입니다.



필수 코스

선택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포인트

01

Chapelle Saint-Hubert

생 휴베르 예배당

플라망 고딕 양식의 걸작인 이 예배당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추정 유해가 안치된 곳으로,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성지巡禮와 같습니다. 정교한 석조 장식과 경건한 분위기는 방문객에게 깊은 존경심을 일깨웁니다. 설명판을 꼼꼼히 읽으면 왕실 후원과 이탈리아 천재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 빈치는 프랑수아 1세의 요청으로 이곳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무덤은 왕실 예배당 내에 마련될 만큼 특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02

Terrasses

파노라마 테라스

샤를 8세가 설계한 이 테라스는 루아르 강을 조망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되었습니다. 기사 타워가 지키는 이 공간에서는 왕들이 강을 건너오는 적을 감시하거나 여유롭게 풍경을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맑은 날에는 수킬로미터 밖까지 보이는 탁 트인 시야가 인상적입니다.

💡 테라스의 난간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방어 기능도 겸비한 군사적 고려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03

Logis Royal

로얄 로지

중세 성곽 위에 건설된 이 궁전은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탈리아식 대칭성과 프랑스 전통 기법이 혼합된 외관은 당시 문화 교류의 상징입니다. 내부의 넓은 홀과 창문들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샤를 8세는 자신의 출생지인 이곳을 최애 거처로 삼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04

Promenoir des gardes

수비대 산책로

본관보다 덜 붐비는 이 길은 성의 방어 구조와 정원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건축물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적합합니다. 주요 관람 구역과는 달리 사색하기에 좋은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 과거에는 왕실 호위병들이 순찰하던 비밀 경로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05

Bibliothèque (trace)

샤를로트 드 사보아의 도서관 자취

물리적 도서관은 남아있지 않지만, 성 내 특정 공간은 지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샤를로트 여왕이 수집한 희귀 서적들은 왕자들의 교육에 핵심이었으며, 이는 앙부아즈가 단순한 거처를 넘어 문화의 메카였음을 보여줍니다.

💡 이 도서관 컬렉션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06

Tours

기사 타워(Tours Cavalières)

성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 이 타워들은 유니크한 실루엣을 형성합니다. 원형과 사각형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은 군사적 효율성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모두 추구한 결과물입니다. 루아르 강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 그 형태가 가장 돋보입니다.

💡 타워 이름은 기병대가 주둔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습니다.

07

Salle de naissance

샤를 8세의 탄생지

1470년 샤를 8세가 태어난 방은 성의 역사에서 핵심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그가 훗날 성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었으며, 왕실과의 인연을 깊게 했습니다. 현재는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자는 존 버레라는 tutors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08

Jardin

공원 피크닉 존

성벽 아래 펼쳐진 공원은 방문객이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잔디 위에서의 점심 식사가 허용되어 있어, 실내 관람 후 신선한 공기 중에서 경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스팟입니다.

💡 15세기 성벽 아래에서 먹는 식사는 왕들의 특권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팁

완벽한 방문을 위한 팁

TIMING

아침 일찍 방문하여 테라스의 혼잡함을 피하고 부드러운晨光
중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PARCOURS

로알 로지 → 테라스 → 생 휴베르 예배당 순으로 방문하여 피
로를 최소화하세요.

PAUSE

관람 후 공원 내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 레 툴 뒤 클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세요.

AUDIOGUIDE

표준 티켓에 포함된 HistoPad 태블릿을 활용하면 정치적 맥락
과 역사적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ILLET

결합 패스(클로 루세 또는 쉐농소 포함)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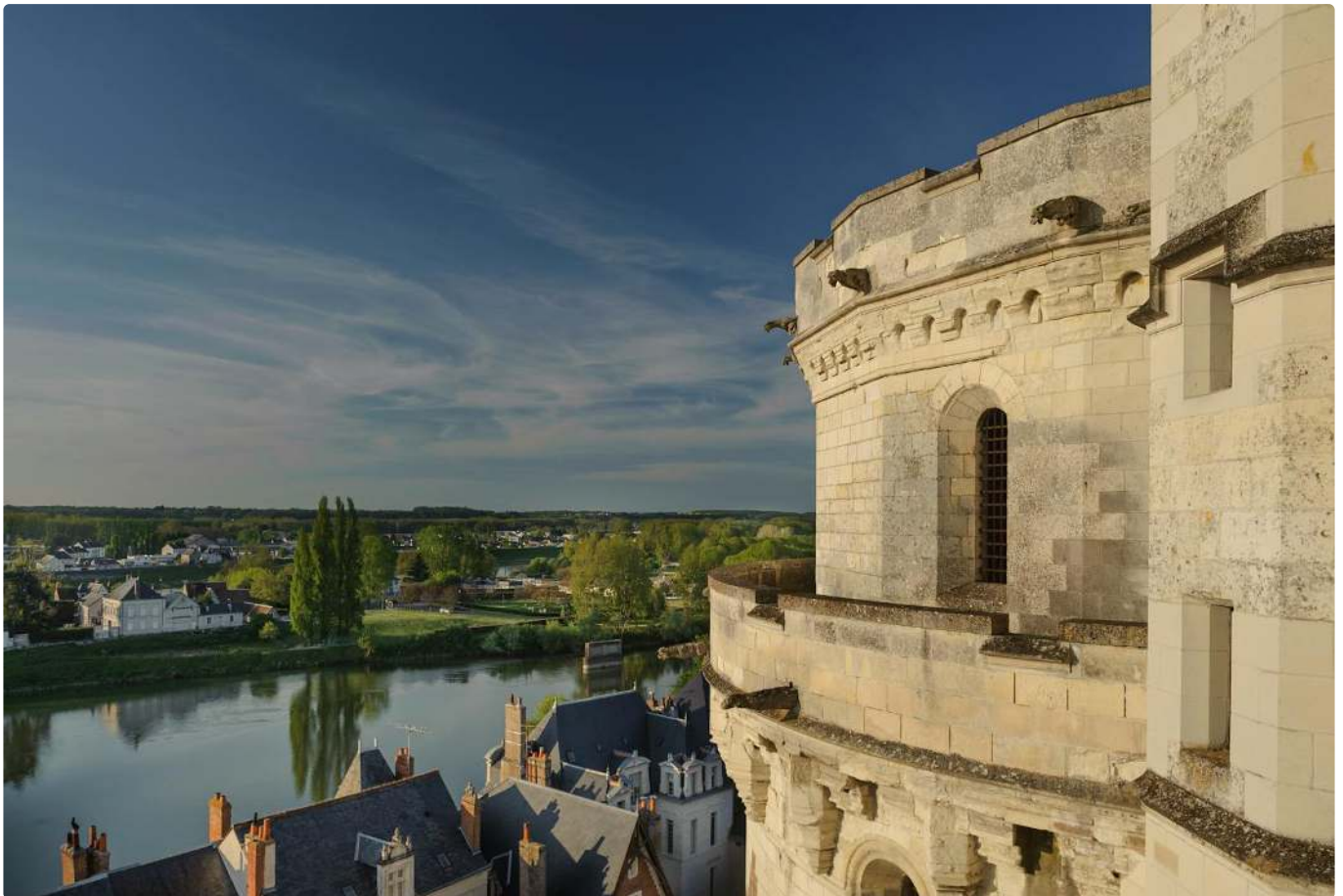
루아르 강 다리나 반대편 강가에서 성의 전체 실루엣을 촬영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NFANTS

아이들은 다 빈치의 발명품 전시(클로 루세 연계)와 성벽 탐험
을 좋아하니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CONFORT

계단과 돌바닥이 많으므로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작은 배
낭만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앙부아즈 왕립 성채 입장권을 예약해야 하나요?

온라인 예약은 특히 성수기와 주말에 대기 줄을 피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것은 입장을 보장하고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일부 결합 패스는 인터넷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그룹 또는 가족을 위한 할인 혜택이 있나요?

네, 어린이, 학생 및 조직된 그룹을 위한 우대 요금이 존재합니다. 도착 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그룹 예약은 종종 전용 양식을 통해 사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결합 패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합 패스(클로 루세 또는 쉐농소와 함께)는 물리적 대표소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제약은 현장 응대를 원활하게 하고 왕립 성채 대표소 대기 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 관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예상 시간은 왕궁과 예배당을 포함한 전체 관람에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테라스를 즐기고 싶다면 추가 시간을 확보하세요. 건축 세부 사항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세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추정 유해는 생 휴베르 예배당(Chapelle Saint-Hubert)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성의 표준 관람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람의 감동적인 하이라이트이므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야릇한 사실 & 흥미로운 정보

다 빈치의 마지막 피난처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프랑수아 1세의 초청으로 앙부아즈에서 마지막 3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추정 유해가 생 휴베르 예배당에 안장된 것은 이탈리아 천재와 프랑스 왕실 간 관계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이 장소는 단순한 묘소를 넘어 르네상스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434년의 왕실 몰수

루이 드 앙부아즈의 음모 사건 이후 성은 왕실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영주제의 종말을 의미하며, 샤를 8세를 비롯한 후대 왕들이 이곳을 주요 거처로 삼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건축사와 문화사에 미친 영향이 큼니다.

50헥타르의 고대 오피둠

현재 성터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던 50헥타르 규모의 오피둠이었습니다. 흙으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정착지는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중세 요새 건설 훨씬 전에 이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가 현재의 성을 더 厚重하게 만듭니다.

샤를로트 드 사보아의 지적 유산

샤를로트 드 사보아는 성 내에 방대한 도서관을 구축하여 왕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희귀 서적을 포함하여 당시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였으며, 앙부아즈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왕실이 단순한 권력 기관이 아닌 지식의 전파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박물관 주변

앙부아즈 왕립 성 주변은 역사와 문화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성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클로 루세(Clos Lucé)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마지막 세월을 보낸 집으로, 그의 발명품과 생활상을 볼 수 있어 연계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앙부아즈 생 에티엔 대성당의 탑에서는 성 전체와 루아르 강을 조망할 수 있는 또 다른絶景을 제공합니다. 방문 후 점심을 즐기기 위해서는 레 툴 뒤 클로 레스토랑을 추천하며, 현지 요리와 푸른 환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저항 및 추방 박물관을 통해 지역의 현대사를 배우거나, 샹텔루 파고다 공원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앙부아즈 왕립 성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르네상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경험입니다. 샤를 8세의 탄생지이자 다 빈치의 안식처인 이 곳에서, 당신은 과거의 왕들과 천재 예술가들이 숨 쉬던 공간을 직접 걸을 수 있습니다. 루아르 강이 내려다보는 테라스에서 잠시 멈춰 서면, 역사의 무게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